

# 高句麗의 忠州地域 進出과 經營\*

梁 起 錫\*\*

- 
- I. 머리 말
  - II. 忠州地域의 進出
  - III. 忠州地域의 經營
    - 1. 國原城 設置記事의 檢討
    - 2. 忠州地域의 支配
  - IV. 맺 음 말
- 

## I. 머리 말

충주지역은 동남쪽으로 태백산에서 분기하여 한반도의 남서쪽으로 뻗은 소백산맥과 북서쪽으로 오대산에서 분기한 차령산맥으로 둘러싸여 형성된 독립된 地理區의 북반부에 자리하고 있다. 소백산맥 줄기에는 小白山(1,421m)·도솔봉(1,314m)·文殊峯(1,162m)·월악산(1,094m) 등을 비롯한 1,000m 내외의 험준한 산들이 연봉을 이루며 경상북도와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이 산맥의 도처에 竹嶺(689m), 鷄鳴嶺(630m), 鳥嶺, 梨花嶺(548m) 등 鞍部가 발달하여 고대로부터 남북간의 중요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남동쪽은 그 殘丘인 大林山(689m)·南山(636m)·鷄鳴山(775m) 등이 병풍처럼 충주시를 감싸고 있으며, 북서쪽은 차령산맥의 殘丘인 玉女峯(387m)·寶蓮山(764m) 등이 가로막고 있어서 충주지역은 南高北低의 盆地地形을 이루고 있다.

한편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의 본류와 속리산 천황봉에서 발원한 達川 및 음성의 修理山에서 발원한 堯渡川 등이 충주지역에서 합류하여 양수리, 서울을 거쳐 서해로 흘러든다. 특히 달천과 남한강의 합류 지점 부근의 하천유역은 범람원이 대규모로 발달된 넓은 충적평야를 이루고 있어 고대이래 水陸의 교통과 풍부한 철산지 등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中原文化’가 형성되어 왔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sup>1)</sup>

---

\* 이 논문은 2002년도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학술연구비 인문학연구원 연구지원비로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겸 중원문화연구소 겸임연구원

1) 중원문화권의 개념 및 설정범위, 역사적 변천 등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미술사학회, 1983. 「중원문화학술회의 특집」 『고고미술』 160호.

충청북도·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5. 『중원문화 학술회의보고서: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발전방향』.

충청북도·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6. 『중원문화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충청북도·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1. 『중원문화학술회의 결과보고서: 통일시대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개발의 차별화 전략』.

충청북도·한국문화정책개발원·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2. 『통일시대 대비 중원문화권 위상정립 및 발전계획』 제1권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2권 중 1권).

이와같이 충주지역은 동부와 남부가 큰 산지로, 북부는 한강, 서부는 달천으로 둘러싸인 천협의 자연조건에다가 소백산맥의 嶺路인 竹嶺·鷄立嶺·秋風嶺을 통한 남북의 육로와 한강을 통한 동서의 水運交通을 연결하는 四通八達의 요충지이다. 따라서 옛 묵객들에 의해 ‘拱南方咽喉之地’, 또는 ‘南北之衝 水陸之會’으로 인식될 정도로<sup>2)</sup> 군사·교통로상의 중요 要害處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삼국이 각축을 벌이는 중요 쟁패지역이 되었다.

지금까지 고대의 충주지역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1970년대 말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 말에 <丹陽新羅赤城碑>와 <中原高句麗碑><sup>3)</sup> 등 고대사에 있어서 충주지역의 군사·교통상 중요성을 알려주는 학술적으로도 비중이 큰 금석문들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충주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1980년대 초에 걸쳐 실시된 충주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구 문화유적에 대한 대규모의 발굴조사<sup>4)</sup>를 통해 이곳을 관통하여 흐르는 한강 수계를 따라 선사시대부터 각 시대에 걸쳐 매우 독특한 ‘江岸文化’가 발달해왔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충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sup>5)</sup>과 고분,<sup>6)</sup> 절터,<sup>7)</sup> 야철지<sup>8)</sup> 등

2) 충주지역이 고대이래 군사·교통상으로 요충지였던 사실은 다음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 鄭麟趾(1396~1478)의 記, “충주는 남방의 咽喉를 질러 막은 곳에 자리 잡았다. 지역이 넓고 호구가 많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충청도 충주목 누정 慶迎樓).
- 洪貴達(1438~1504)의 記, “중원은 남북의 요충이다. 서울로부터 남방으로 가는 사람이 물에 뜨고 육지로 달리어 중원에 모이여(南北之衝 水陸之會) 길이 갈라져서 두 고개 [조령과 죽령] 을 넘어 목적지에 도달하고, 남방으로부터 북쪽으로 오는 자도 또한 각각 두 고개를 경유하여 중원에 모여서 다시 물과 육지를 경유하여 서울에 도달한다.” (앞책, 누정 淸燕堂).

3) 단국대사학회, 1978. 『사학지』 제12호 단양적성비특집호 ; 1979. 『사학지』 13호 중원고구려비특집호 참조.

4) 충북대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1984. 『충주댐수몰지구문화유적 발굴조사종합보고서』 및 1985. 『충주댐수몰지구문화유적 연장조사발굴보고서』, 조사보고 제16책 참조.

5) 지금까지 충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에 대한 학술조사는 다음과 같다.

충주공전 박물관·충주시·충주문화원, 1984. 『충주산성종합지표조사보고서』 .  
 충주공전 박물관·충주시, 1986. 『충주산성 및 직동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 1995. 『충주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

차용걸 외, 1999. 『충주산성 동문지 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충주시.

차용걸 외, 1992. 『중원 장미산성』 충북대 박물관(조사보고 제36책).

차용걸 외, 1992. 『중원 견학리 토성』, 충북대 박물관(조사보고 제33책).

차용걸 외, 1999. 『제천 덕주산성지표조사보고서』,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제천시(중원문화연구논총 제8책).

상명대 박물관, 1997. 『충주 대림산성 정밀지표 조사보고서』 .

그밖에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는 다음과 같다.

김현길 외, 1991. 『탄금대 지표조사보고서』, 충주공전 박물관·충주시.

차용걸 외, 2002. 『충주 탄금대』, 충주시·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중원문화연구총서 제28책).

6) 충주지역의 고분에 대한 주요 학술조사는 다음과 같다.

충주공전 박물관·충주시·충주문화원, 1985. 『충주직동폐고분지표조사보고서』 ; 1986. 『충주산성 및 직동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

충주박물관, 1992. 『충주 단월동 고려묘』 .

건국대박물관, 1994. 『충주 단월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

문화재연구소, 1991. 『중원 누암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 1992. 『중원 누암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

차용걸 외, 1992. 『중원 누암리 고분군 지표조사보고서』, 중원군·충북대 박물관(조사보고 제32책) ; 1993. 『중원 누암리 고분군』, 충북대 박물관(조사보고 제38책).

권학수 외, 2000. 『충주 하구암리 고분군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보고서』, 충주시·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중원문화연구총서 제15책).

에 대한 고고학적 학술조사가 잇달아 진행되면서 고대 충주지역의 역사상의 일면을 복원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문헌연구에서 볼 때 종래 고대 충주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세분화된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온축해 오고 있다.

고구려의 국원성과 지배방식에 관한 연구경향을 보면 지금까지 고구려 국원성의 설치시기와 경영목적, 5세기 고구려세력의 南限과 지배형태 문제 등이 검토되었고, 2000년에는 고구려연구회의 주관으로 <중원고구려비>의 재판독과 국제학술회의가 열리면서 <중원고구려비>의 관심제고와 함께 새로운 비문판독법을 원용하여 이 방면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먼저 고구려의 충주지역에 대한 주목할만한 문헌연구는 이도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고구려 국원성 설치시기를 475년 장수왕대의 백제공함 이후로 보는 종전의 견해를 부정하고 이를 광개토왕대로 소급시켜 보면서 국원성 설치를 신라 경영을 위한 別都경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여 금후 이 방면 연구에 큰 지표가 되었다.<sup>9)</sup> 이 견해는 충주지역이 갖는 군사·교통로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면 타당한 일면이 있지만, 국원성 경영을 別都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충주지역의 고구려계 고고학적 자료의 존재나 또한 고구려의 3경제 운용실태 및 『삼국사기』 고구려 영역 관련기사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놓고 볼 때 너무 확대 해석된 느낌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소백산맥 이남의 고구려영토 기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또 순흥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원용하여 5세기 고구려세력의 南限과 그 영유 배경 및 지배형태에 대한 문제가 세밀히 검토되기도 하였다.<sup>10)</sup> 그러나 여전히 관련 기록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남아 있는데다가 이 기사를 신뢰할 경우 고구려의 지배기간과 세력 범위 및 성격 등에 대해 여러 견해가 분분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고구려연구회의 주관으로 <광개토왕비>와 <중원고구려비>를 대상으로 고구려금석문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 비석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지견을 더하게 되었다.<sup>11)</sup> 그 중 <중원고구려비>에 대한 재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200여 자 가운데 20여 자가 새로 판독되었고 이를 토대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어 비의 건립목적, 건립연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고구려의 城과 관방체계 등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 비문 역시 금석문이 갖고 있는 판독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비문의 정확한 내용 파악이 전체되지 않는 한 그 건립시기와 목적,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학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 종합하면서 고구려의 충주지역 진출시기와 과정, 그리고 지배실태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문헌기

7) 청주대 박물관, 1978. 『미륵리사지발굴조사보고서』.  
 정영호, 1993. 『중원 탐평리사지 발굴조사보고서』.  
 장준식 외, 2001. 『충주김생사지발굴조사보고서』.  
 8) 길경택 외, 1996. 『충주 이류면 야철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충주박물관.  
 9) 이도학, 1988a. 「영락6년 광개토왕의 남정과 국원성」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 1988b. 「고구려의 낙동강유역 진출과 신라·가야 경영」 『국학연구』 2(국학연구소).  
 10) 김정배, 1988.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문제」 『한국사연구』 61·62합집.  
 정운용, 1989. 「5세기 고구려 세력권의 남한」 『사총』 35 ; 1994. 「5~6세기 신라·고구려 관계의 추이 -유적·유물의 해석과 관련하여-」 『신라의 대외관계사연구』 15(신라문화선양회).  
 서영일, 1991. 「5~6세기의 고구려 동남경 고찰」 『사학지』 24.  
 김현숙, 2002. 「4~6세기 소백산맥 이동지역의 영역향방」 『한국고대사연구』 26.  
 11) 고구려연구회편, 1996. 『광개토호태왕비 연구 100년』, 학연문화사 ; 2000. 『중원고구려비 연구』, 학연문화사.

록과 <광개토왕릉비>와 <중원고구려비> 등 고구려의 금석문을 통해 고구려의 충주지역 진출시기와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며, 이어 소백산맥 이동의 경북일원에 고구려 영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삼국사기』 지리지 기가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검토하여 충주지역의 고구려때 지명인 국원성이 어느 시기부터 명명되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중원고구려비>에 나오는 관련 인물들과 장소를 검토하여 당시 고구려의 충주지역 지배 실상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절대 부족과 지명 고증이나 개별 사실에 대한 여러 해석상의 차이, 그리고 관련 유물 유적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등으로 다소 논리의 비약이 예견되는 바 후일에 보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 II. 忠州地域의 進出

백제에 이어 남한강유역의 요충인 충주지역에 진출한 나라는 고구려이다. 그러면 고구려가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충주지역에 진출하였는지 알아보자.

먼저 고구려가 충주지역에 진출한 시기부터 살펴보자.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대략 고구려가 백제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한 광개토왕대(391~413)의 일로 생각된다. 다음의 <광개토왕릉비문> 永樂 6년(396)조 이후의 기사<sup>12)</sup>가 참조되기 때문이다.

- A-① 以六年丙申 王躬率□軍 討滅殘國 軍□□□ 攻取壹八城白模盧城 - (중략) - 彌沙城 □舍蔦城阿旦城古利城 - (중략) - 古牟婁城閨奴城 - (중략) - □其國城 殘不□義 敢出□□ 王威赫怒 討阿利水 遣刺迫城 橫□□□便□城 而殘主困逼 獻□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 先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 □五十八城 村七百 將殘主弟 并大臣十人 旋師還都
- ② 八年戊戌 教遣偏師 觀帛慎土谷 因便抄得莫□羅城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 ③ 九年己亥 百殘違誓 與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 (후략)
- ④ 十年庚子 教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 (후략)

위에 근거하여 고구려가 광개토왕대인 영락 6년(396) 작전 결과 충주지역을 백제로부터 공취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13)</sup> 즉 <광개토왕릉비문>(이하 능비문으로 약칭함) 영락 6년 조는 그 이전의 對 백제전의 戰果를 일괄 기재한 集約文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공취한 58성 가운데 關(閣)彌城, 阿旦城, 古牟婁城, 舍蔦城 등의 소재지를 검토한 결과 영락 6년 이전 對 백제전에서 얻은 전과인 27성은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에 소재한 것으로 드러났고, 영락 6년 광개토왕이 친정으로 공취하여 자신의 守墓人烟戶로 차출한 ‘新來韓穢’ 31성 5지역의 대부분은 남한강 상류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고구려는 충주지역을 포함한 남한강유역을 확보함으로써 전략상으로 백제를 배후에서 압박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소백산맥 이남으로 신라·가야지역 진출에 필요한 보급·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충주지역에 別都의 성격을 가진

12) 水谷梯二郎의 釋文을 참조하였음.

13) 이도학, 앞글, 87~107.

國原城을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영락 6년 작전(A-①)에 과연 충주지역이 포함되어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우선 능비문 영락 6년조의 고구려가 공취한 성의 명칭 중에서 공취한 城이 일부 剝落되어 있고 또한 국원성 이전의 옛 명칭을 알 수는 없지만 충주지역의 옛 지명인 ‘未乙省’, ‘託(亂)長城’<sup>14)</sup>이나 ‘國原城’ 등의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때 공취한 58성이 대체로 임진강 연변 및 한강 이북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sup>15)</sup> 또한 守墓人烟戶 가운데 新來韓穢는 백제인 韓과 그 피정복민인 穢를 지칭하는 것으로 穢人の 경우 남한강 유역뿐 아니라 임진강에서 황해도 新溪지역에 거주하던 말갈계통의 주민이라는 설도 있기 때문이다.<sup>16)</sup>

다음으로 고구려의 충주지역 진출문제와 관련하여 영락 8년(398)의 對 帛愼作戰과 영락 10년(400)의 신라구원작전이 주목된다. 영락 8년 기사(A-②)는 고구려가 별동부대를 파견하여 帛愼土谷에 있는 莫△羅城 加太羅谷 주민 3백여 명을 抄掠한 후 이들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위의 帛愼의 위치를 한강 유역이나 강원도 지역의 濊의 땅으로 비정할 경우<sup>17)</sup> 帛愼을 『삼국사기』에 나오는 靺鞨세력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387년 예망에 거주하고 있던 말갈이 關彌嶺에서 백제와 전투를 벌인 이래<sup>18)</sup> 6세기 중반 신라 진흥왕의 북진 때까지 한동안 고구려와 함께 백제와 신라를 침공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말갈의 대부분은 고구려에 부용화된 세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락 8년 작전을 충주지역과 직접 관련시키는 어렵지만 어쨌든 아직 고구려에 부용화되지 않은 말갈계통의 일부 세력을 복속시켜 남한강 유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이어 영락 10년(400) 기사(A-④)는 영락 9년(399) 신라사신으로부터 구원요청을 받은 고구려군이(A-③) 步騎 5만명을 거느리고 男居城과 新羅城에 이르는 곳까지 침입한 왜적을 궤멸시킨 내용과 이에 대한 보답으로 신라왕이 직접 조공을 바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락 10년 고구려군 步騎 5만명으로 편성된 신라 구원군의 주된 남정로는 551년 신라의 북진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죽령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양→평강→춘천→원주→제천→단양→영주→안동→경주의 루트인 중부 내륙교통로를 주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이천→충주지역을 잇는 고구려의 주요 남하루트가 사실상 백제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던 점<sup>19)</sup>도 참고된다. 그리고 영락 10년의 신라구원작전은 당시 “왜

14) 이들 지명은 『삼국사기』 지리지4 고구려·백제 한산주 국원성조에 나오는 국원성의 별칭인데 未乙省의 ‘省’은 ‘城’의 誤字인 것으로 보이고, 託長城의 ‘託’은 『고려사』, 『삼국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주목조에는 ‘亂’자로 되어 있어音が 서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이병도, 1976. 「광개토왕의 웅략」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382.  
이인철, 1996. 「광개토호태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의 남방경영」 『광개토호태왕비 연구 100년』, ((사)고구려연구회, 학연문화사), 742~743.

16) 이인철, 앞 글, 740.

17) 浜田耕作, 1974.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 『古代朝鮮と日本』, 學生社, 58.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170.

18) 『삼국사기』 백제본기 진사왕 3년 9월.

19) 이천시 사슴동과 관음동의 설봉산성은 해발 325m 봉우리의 7부에서 9부 능선을 중심으로 축조된 둘레 1,079m의 테피식 산성인데 4세기 후반~5세기 초에 백제에 의해 초축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단국대 중앙박물관, 1999.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2002. 『이천 설봉산성 3차 발굴조사보고서』), 이천 장호원읍·설성면의 雪城山城은 해발 290m의 설성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축조된 둘레 1,095m의 포곡식 산성인데 4세기 후반 백제에 의해 초축된 것으로 추정하였다(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이천 설성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및 2002.9.6. 「이천 설

인이 우리 국경에 가득히 들어와서 城池를 파괴하고 있다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는 A-③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왜의 침입을 받고 있는 신라의 사정이 매우 급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신라 구원군은 원주에서 충주로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제천을 거쳐 죽령을 넘어 신라 영역으로 갔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오늘날의 영주, 안동의 임하면, 청송, 울진, 영덕지역 등 소백산맥 이동의 경북지역이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점은 바로 고구려군의 남정과 관련하여 생긴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또한 <중원고구려비>의 ‘新羅土內幢主’ 즉 고구려군 幢主가 주둔해 있던 于伐城이 영주시 순흥면 일대로 비정되는 점도<sup>21)</sup> 참고된다. 다만 이 루트는 신라의 왕도인 금성으로 가는 첩경이기는 하지만 산로가 많아 매우 험하고 불편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고구려군이 동해안의 전략상 요지인 悉直(삼척)을 영유했을 경우<sup>22)</sup> 신라 訥祗王(417~458)때 신라의 朴堤上이 고구려에 인질로 간 왕자 卜好를 귀환시킬 때<sup>23)</sup> 이용한 동해안로 [北海之路]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을 것이다.

반면 당시 고구려의 남정군이 계림령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계림령로를 이용하였을 경우 문경→상주→선산→대구→영천→경주의 루트를 거치게 되는데, 충주지역이 전략상 소백산맥 이남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

성산성 2차 발굴조사지도위원회 회의자료). 그리고 충북 음성·안성·이천의 경계에 있는 望夷山城은 해발 427m에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포곡식산성인데 내성 토루부분은 백제에 의해 축조되었으며, 4~5세기로 편년되는 鳥足土土器와 굽 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봉수대 남쪽 계곡 경사면의 우물터 부근에서 백제계의 철제단갑과 백제토기편이 발견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단국대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발굴보고서(1)』: 1999.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2. 『망이산성 -충북구간 지표조사보고서-』).

이들 산성을 백제에 의해 축조되어 신라, 고려, 조선때까지 사용된 것으로 고구려 관련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20) 이 기록을 긍정적으로 신뢰하는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정배, 1988.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문제 - 순흥지역의 고고학자료와 관련하여 -」 『한국사연구』 61·62합집.

이도학, 앞글(1988a,b) 참조.

정운용, 1989. 「5세기 고구려 세력권의 남한」 『사충』 35 및 1994. 「5~6세기 신라·고구려 관계의 추이 - 유작·유물의 해석과 관련하여 -」 『신라의 대외관계사연구』 15.

서영일, 1991. 「5~6세기 고구려 동남경 고찰」 『사학지』 24.

김현숙, 2002. 「4~6세기경 소백산맥 이동지역의 영역향방」 『한국고대사연구』 26.

21) 우벌성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① 경주설(이병도, 1979.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사학지』 13, 25), ② 충주설(변태섭, 1979. 「중원고구려비의 내용과 연대에 대한 고찰」 앞책, 43), ③ 영주·순흥·풍기설(손영중, 1985.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5-2, 30 : 김창호, 1987. 「중원고구려비의 재검토」 『한국학보』 47, 149 :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중원고구려비의 釋讀과 내용의 의의」 『사충』 51, 26~27) 등이 있다.

22) 삼척지역은 지질상 沃川地向斜의 기점이 되는 곳이어서 지표면의 굴곡이 심하고 해안 곳곳에 海蝕崖가 발달하여 斷崖를 이루는 곳이 많다. 따라서 강릉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척지역의 확보가 관방상 관건이 된다. 따라서 삼척지방은 삼국시대에 悉直이었는데 이곳을 확보하기 위한 麗羅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450년에는 신라 何瑟羅성주 三直이 이곳에서 고구려 변장을 살해하여 麗羅間的 우호를 깨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고(『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34년 7월), 468년에는 고구려와 말갈이 이곳에 대거 침입해 온 사례가 있다(앞책, 자비마립간 11년 봄). 통일기인 658년에는 고구려에 부용된 말갈세력의 침략 위협에 노정되어 있는 강릉의 何瑟羅小京을 폐지하고 그 대신 삼척의 悉直에 다 군사적 거점단위의 성격을 가진 北鎭을 설치하여 말갈세력의 침입에 대처하고 아울러 강릉지역과 신라왕도를 연결하는 ‘北海之路’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한 적이 있었다(앞책, 태종무열왕 5년).

23) 『삼국사기』 열전 박제상 및 『삼국유사』 권1, 기이2, 내물왕 김제상.

루트는 낙동강 수운로를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백제와 그 동맹 세력인 가야와 인접해 있어서 이들로부터 군부대 이동상황과 보급로 운송이 쉽게 노출되어 기습 공격당할 우려가 상존해 있다.

이와같이 고구려 광개토왕이 대대적으로 백제에 공세를 펴는 영락 6년(396)부터 영락 10년(400) 신라구원 작전 때에 걸친 시기에 충주지역은 정황으로 보아 고구려 세력권으로 편입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광개토왕대의 남정은 백제를 멸망시켜 영역화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제를 제압하여 고구려 천하관에 복귀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고구려군은 영락 6년 대 백제전 승리 후 백제 아신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자마자 바로 인질을 이끌고 귀환한 점이 참고된다. 따라서 고구려는 신라 구원을 위해 개설한 죽령로와 그 주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충주지역에까지 일시적으로 세력을 미쳤을 개연성은 높다. 당시 충주지역은 당시의 고구려군이 신라구원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군사·교통로상으로 볼 때 그리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충주지역이 추풍령로, 계림령로, 죽령로를 함께 공제할 수 있는 전략상의 요충인 점은 틀림없지만, 문의·청주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백제와 인접한 접경지역인 테다가 소백산맥의 嶺路인 계림령을 경계로 신라와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sup>24)</sup> 죽령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군사적 거점지역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 Ⅲ. 忠州地域의 經營

#### 1. 國原城의 設置記事의 檢討

『삼국사기』와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충주지역에 관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B-① 中原京은 본래 고구려의 國原城이었는데, 신라가 평정하여 眞興王이 小京을 설치하였다. 文武王때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592步였다. 景德王이 中原京으로 고쳤는데 지금의 忠州이다. (『삼국사기』 권35, 동 잡지4, 지리2, 漢州)
- ② 漢山州 國原城 [또는 未乙省, 또는 託長城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권37, 동 잡지6, 지리4, 고구려·백제)
- ③ 忠州牧은 본래 고구려 國原城이었는데 [또는 未乙省, 또는 藪長城] 신라가 이를 취하여 진흥왕에 소경을 설치하였다가 경덕왕이 중원경으로 고쳤다. - (후략) (『고려사』 권10, 지10, 지리1, 충주목)

위 기사 B-①,②,③에 의하면 고구려가 충주지역을 영유하고 國原城이란 행정구역을 설치하였으며 별칭으로 未乙省, 또는 託長城, 藪長城으로 불리워졌음을 알 수 있다. 후에 신라가 眞興王때 고구려를 물리치고 충주지역을 영유한 다음 이곳에 國原小京을 설치하였던 사실을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C-① 國原을 小京으로 삼았다. 沙伐州를 폐하고 甘文州를 설치하여 沙浪 起宗을 軍主로

24) 신라가 영락 10년(400) 신라 구원군 파견의 대가로 소백산맥 이동의 경북지역을 고구려에 할양한 것으로 보는 대신 계림령로는 넓은 농경지가 많고 국방상으로도 중요한 전략 요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에게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박현숙, 앞글, 89, 91).

- 삼았으며, 新州를 폐하고 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 (동 진흥왕 18년, 557)
- ② 봄 2월에 貴戚子弟와 6부 豪民을 옮겨 國原小京으로 옮겨 그곳을 채웠다. (동왕 19년, 558)
- ③ 가을 8월에 阿滄 春賦에게 명하여 나아가 國原을 지키게 하였다. (동왕 26년, 565)
- ④ 9월에 國原城 [옛날의 薊長城이다], 北兄山城, 召文城, 耳山城 - (중략) - 敵良州의 骨爭峴城을 쌓았다. (문무왕 13년, 673)

위 기사 C-①,②,③에 의하면 신라가 진흥왕 18년(557)에 고구려가 사용하던 명칭을 그대로 습용하여 國原小京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료 C-④는 문무왕때 나당전쟁이 벌어지면서 신라가 당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의 군사적 요충지에 성곽시설을 축조하는 기사이다. C-④의 국원성 축조기사는 B-①의 둘레 2,592步인 국원소경성 축조기사와 같은 기사임을 알 수 있다. C-④의 국원성, 또는 완장성은 내용적으로 볼 때 충주지역에 있는 소경성의 개별 명칭을 뜻하지만, ‘國原’이나 ‘薊長’이란 명칭 자체는 충주지역을 지칭하는 지역 명칭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국원성을 옛날의 薊長城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sup>25)</sup> 사료 B-③의 국원성 별칭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완장성은 국원성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이전인 백제시대부터 충주지역을 지칭하는 하나의 지역명칭이었다가, 국원성이란 명칭을 사용한 이후에도 한동안 함께 사용하던 명칭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신라가 설치한 소경의 명칭에 ‘原’자가 붙어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國原’이란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국원소경 설치 이외에(C-①) 다른 방위명 소경 설치에 관한 『삼국사기』의 기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D-① 北原京은 본래 고구려의 平原郡이었는데 文武王이 北原小京을 설치하였다. 神文王 5년 [685] 에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1,031步였다. 景德王이 그대로 썼는데 지금의 原州이다. (권35, 잡지4, 지리지2, 삭주)
- ② 西原京은 신문왕 5년에 처음으로 西原小京을 설치한 것이었다. 경덕왕이 서원경이라 고쳤는데 지금의 淸州이다. (권35, 잡지4, 지리지3, 웅주)
- ③ 南原小京은 본래 백제의 古龍郡이었는데 신라가 병합하였다. 신문왕 5년에 처음으로 소경을 설치하였다. 경덕왕 16년 [757] 에 남원소경을 설치하였는데 지금의 南原府이다. (권35, 앞책, 전주)

위 기사 D-①,②,③에서 신라가 설치한 5소경의 명칭 중 금관소경을 제외하고 모두 방위명 소경 명칭에 ‘原’자를 일률적으로 붙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신라 진흥왕 18년(557)에 처음 설치한 충주지역의 국원소경(C-①)과 문무왕 18년(678)에 설치한 원주지역의 북원소경(D-①), 그리고 통일 전쟁 직후인 신문왕 5년(685)에 설치한 청주의 서원소경(D-②)과 남원의 남원소경(D-③)이 그것이다.

그런데 신라는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들’, ‘벌판’을 나타내는 ‘伐’이나 또는 ‘火’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徐羅伐’, ‘伊伐支縣’, ‘屈火郡’, ‘伊火兮縣’ 등이 그 좋은 예인데 방위명 소경의 경우 이 ‘伐’이나 ‘火’ 명칭 대신에 한문표기인 ‘原’을 사용하고 있다. 지

25)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모두 56개의 지명에 대한 分註가 있는데 대부분이 原註가 아니고 『삼국사기』 撰者가 기록한 註로 보고 있다(김태식, 「『삼국사기』 지리지 신라조의 사료적 검토」 『삼국사기』의 원전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218~232.

명에 ‘原’자를 사용한 예는 신라의 방위명 소경 명칭 이외에 고구려 영유기때의 충주와 원주지역 명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충주지역은 고구려때 국원성이었다가 신라가 공취한 이후에는 국원소경(C-①)으로 바뀌어 행정구역의 격이 높아진 반면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원주지역은 고구려때 평원군이 신라때 북원소경으로(D-①) 행정구역의 격과 명칭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방위명 소경 명칭의 ‘原’자는 일단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의 국원성 설치기사를 포함하여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영역관련 기사를 그대로 취신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점이 생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고구려 영역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권35와 권37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난 고구려 영역은 통일신라시대의 9주 중 漢州(漢山州), 朔州(牛首州), 溟州(何瑟羅州)의 3개주에 걸쳐 있는데 권35에서는 州를 포함하여 郡은 51개, 縣은 95개 기타 8개로 도합 154개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권37은 州郡이 39개, 縣이 88개, 기타(城·忽·達·峴 등) 37개로 도합 164개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지명은 그 저본사료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군현의 수나, 읍의 격 및 지명의 표기방법상의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권35는 통일신라의 지명을 기록한 반면 권37은 주로 고구려 계통의 사료에 의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26)</sup> 그리고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지명은 대략 통일신라의 북방 경계선인 대동강과 원산만 일대의 이남지역에서부터 소백산맥 이동의 경북지역인 영덕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시기는 4세기말 광개토왕대부터 475년 이후 적극적인 남진을 추진하여 아산만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판도를 이룬 시기인 6세기초까지의 정세를 반영하는 지명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27)</sup>

그런데 『삼국사기』 권35와 권37에 나오는 고구려의 군현이 실제 고구려가 本紀나 금석문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검토해 볼 때 고구려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신라가 진흥왕대의 북진 이후에 설치한 군현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주목된다.<sup>28)</sup> 이러한 서술이 기록에 남게 된 것은 삼국민을 고르게 통합하였다는 신라정부의 통일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sup>29)</sup> 무엇보다도 4세기말~5세기 후반 고구려의 신라지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로 이해하고 싶다. 즉 영락 10년(400) 고구려군의 신라구원 작전때의 죽령로를 통한 남정루트 확보, <중원고구려비>의 ‘新羅土內幢主’에 보이는 고구려군의 신라주둔,<sup>30)</sup> 신라 왕자 實聖과 卜好의 인질과견, 그리고 눌지왕의 왕위계승에 고구려군의 관여<sup>31)</sup> 등을 통한 고구려인의 신라지배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81년 고구려와 말갈이 狐鳴城 [청송] 을 거쳐 彌秩夫 [홍해] 까지 침공하여 신라왕도를 위협한 사례는<sup>32)</sup> 고구려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립화를 추구하고 있던 신라를 응징하여 다시 고구려 천하관에 복귀시키

26) 高寬敏은 광개토왕대 이후의 지명은 『舊三國史』에 의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1996. 『三國史記』原典的研究』, 雄山閣, 137).

27) 서영일, 앞글(1991), 2~5.

28) 이인철은 『삼국사기』의 본기와 지리지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점, 5~6세기 고구려가 남하하여 점령한 지역이 동예의 세력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 점, 그리고 고구려계 산성과 불상 및 고분의 분포 등에 주목하여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영역관련기사를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2000. 『고구려의 대외정복연구』, 백산자료원, 296~326).

29) 이인철, 앞책, 311.

30) 『일본서기』 雄略紀 8년 춘 2월조에는 신라영토 내에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31) 『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즉위년.

32) 앞책, 소지마립간 3년 3월.

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 권35와 권37의 저본이 된 신라지에는 이러한 고구려인의 신라지배에 대한 연고권을 반영한 고구려 계통의 저본사료를 활용한 데에서 이러한 기록이 남겨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삼국사기』 권35와 권37의 지리지에 나오는 고구려 영역기사를 검토한 결과 실제 고구려의 군현이 설치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라가 진흥왕대의 북진 이후 설치한 군현이었으며, 그 서술배경은 광개토왕대 고구려군의 남정 이후 4세기말~5세기후반 고구려의 신라지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 볼 때 충주지역이 고구려때 국원성이었다는 『삼국사기』 지리지 기사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구려에 의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아마 신라 진흥왕때 설치된 국원소경의 명칭에 부회하여 기록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충주지역의 고지명인 ‘國原’은 고구려로부터 平原郡 [원주] 과 함께 충주지역을 확보한 신라 진흥왕 12년(551) 이후 신라에 의해 명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전 백제와 고구려 영유기에는 아마 국원성의 별칭인 ‘未乙省’, ‘託長城’ 또는 ‘亂長城’ 등으로 불리워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라 진흥왕대 충주지역에 소경을 설치하여 ‘國原’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國原’이란 말은 ‘나라의 중심지’를 뜻하는데<sup>33)</sup> 후에 신라가 이를 개칭한 ‘中原’이란 용어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충주지역은 소백산맥의 嶺路와 한강의 水運交通이 四通八達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일 뿐 아니라 소백산맥의 영로를 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이다. 또한 고대국가 발전의 중요한 자원인 철산지라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경제 물류의 집산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흥왕이 이러한 군사교통상, 경제상으로 중요한 요지에 국원소경을 설치한 의도는 직접적으로는 한반도의 요충인 한강유역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가졌지만, 장차 삼국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대한 구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진흥왕이 충주지역을 점령한 다음 開國이라는 연호사용을 한 점(E-②)도 바로 이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51년 정월 신라 진흥왕의 開國 연호 사용은 단순히 왕태후의 섭정을 벗어나 친정을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대내적으로 異斯夫·居柒夫 등 비지증왕계 세력과의 정치적 연합을 통해 왕권의 안정을 얻게 되었고,<sup>34)</sup> 대외적으로 고구려의 전략적 요충인 충주지역의 확보를 통해 장차 삼국제패의 관건이 되는 한강하류 유역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도 함축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원소경은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설치한 첫번째 소경이었을 뿐 아니라 후에 중원소경의 개칭에서 나타나듯이 5소경 중 중심 소경에 위치하였다. 이는 중대 신라인들이 왕경을 신라 천하관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그 외연에 해당하는 고구려와 백제의 고토에 국원소경 중심의 방위명 소경을 사방에 배치하여<sup>35)</sup> 국원소경을 소우주의 중심지로 인식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그 추진과정이 소경설치 단계(C-①)→ 사민정책 추진단계(C-②)→ 지방관 파견 단계(C-③)→ 소경성 축조단계(B-①)를 거치면서 계획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던 점을 보면<sup>36)</sup> 그 위상이 왕경에 준하는 副都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일반 民戶들을 사민시켜 채운 다른 소경과는 달리 국원소경에는 왕경

33) 변태섭, 1983. 「중원문화의 역사적 배경」 『고고미술』 160, 43.

34) 노용필, 1990. 「신라 진흥왕대 大等의 분화와 그 정치적 배경」 『역사학보』 127, 31~32.

35) 신라인들이 사방의식을 갖고 있었던 예로는 창령비의 ‘四方軍主’ 및 ‘四方을 網羅한다’는 신라의 국호(『삼국사기』 지증왕 4년 10월) 등을 들 수 있다.

36) 국원소경 설치과정과 의도에 대한 글은 양기석, 1993. 「신라 5소경의 설치와 서원소경」 『호서문화연구』 11 및 2002. 『신라서원소경연구』, 서경문화사, 68~79를 참조할 것.

의 거주하던 貴戚子弟와 6부의 豪民들을 옮겨 살게 한 점에서도 진흥왕이 국원소경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개제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신라가 550년에 충주지역을 확보한 이후 국원소경의 설치를 통해 장차 한반도의 요충인 한강유역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구축하고, 장차 삼국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대한 구도에서 국원소경을 副都의 위상으로 구축해 나갔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신라 진흥왕은 ‘나라의 중심지’라는 의미를 가진 ‘國原’이란 명칭을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國原’이란 ‘나라의 중심지’의식은 통일신라시대에 ‘中原’이라는 중심지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후에 국원소경은 중원소경, 경덕왕 때에는 중원경으로 개칭되어 충주지역, 범위를 넓혀서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명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國原이나 中原이란 지명은 같은 나라의 중심지라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지만 신라하대에도 중원이란 명칭과 함께 국원이 병용되어 사용된 점<sup>37)</sup>이 참고된다.

## 2. 忠州地域의 支配

고구려가 충주지역을 어떻게 지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건립 당시 충주지역이 남방경략의 거점으로서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곳임이 밝혀졌으나, 비문 자체의 缺落과 불완전한 비문 판독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다.

먼저 고구려가 충주지역을 지배한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구려가 충주지역에 진출한 시기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광개토왕대의 신라구원을 위한 남정시기인 영락 6년(396)~영락 10년(400)에 이르는 시기로 추정된다.<sup>38)</sup> 그 퇴축시기는 신라 진흥왕이 죽령로를 통해 高峴 이남에서 竹嶺 이북에 걸친 10郡을 점령하는 551년과 그리 멀지 않는 시기로 보이는데 『삼국사기』의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E-① 정월에 백제가 고구려의 道蔭城을 공취하자 3월에 고구려는 백제의 金峴城을 함락시켰다. 왕은 양국이 싸움에 지친 기회를 타서 이찬 異斯夫에게 군사를 주어 이를 공격케 하니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이 두 성을 공취한 다음 성을 증축하고 천 여명의 군사를 머무르게 하여 이를 지키게 하였다.(진흥왕 11년, 550)
- ② 정월에 연호를 開國으로 고쳤다. 3월에 왕은 국내를 순수하다가 娘城에 이르렀는데, 于勒과 그의 제자 尼文이 음악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그들을 불렀다. 왕은 河臨宮에 머무르면서 음악을 연주케 하였다.(진흥왕 12년, 551)
- ③ 우륵은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악기를 가지고 신라로 투항하였다. 이에 진흥왕은 그를 받아들여 國原에 안치하였다.(樂志)

37) 『삼국사기』 신라본기 헌덕왕 14년(822) 3월의 ‘국원경’, 동 효공왕 4년(900)의 ‘국원’의 예가 있다.

38) 고구려의 충주지역 진출시기를 중원고구려비의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475년 고구려의 불시의 침입에 의한 백제의 한성함락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다(변태섭, 1979. 「중원고구려비의 내용과 연대에 대한 검토」 『사학지』 13, 51 : 신형식, 1984. 「중원고구려비에 대한 일고찰」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407 : 김영하, 1997. 「고구려의 발전과 전쟁」 『대동문화연구』 32, 28). 이에 반해 <광개토왕릉비문>의 영락 6년 작전과 남정 때에 고구려가 충주지역을 공취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도학, 앞글(1988a), 97~102 : 김정배, 1988.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문제」 『한국사연구』 61·62, 12 : 정운용, 1989. 「5세기 고구려 세력권의 남하」 『사총』 35, 5).

- ④ 12년 辛未에 왕이 거칠부와 대각찬 仇珍, 각찬 比台, 잡찬 耽知, 잡찬 非西, 파진찬 奴夫, 파진찬 西力夫, 대아찬 比次夫, 아찬 未珍夫 등 8장군에게 명하여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백제인이 평양을 격파하자 居柒夫 등은 이진 틈을 타서 竹嶺 이외 高峴 이내의 10郡의 땅을 공취하였다.(거칠부전)

사료 E-①을 보면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道薩城과 金峴城을 공취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충주 서남쪽에 있는 괴산 曾坪의 尼聖山城과<sup>39)</sup> 충남 연기군 전동면의 金城山城으로<sup>40)</sup> 비정될 경우 신라의 충주지역의 확보시기는 551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료 E-②는 551년에 진흥왕이 지금의 충주로 비정되는 娘城에<sup>41)</sup> 巡狩하는 도중 임시 행궁에 해당하는 河臨宮에서 구가야계 유민으로 이곳에 사민되어 온 우륵(E-③)과 그의 제자 이문을 불러 가야악을 연주케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서 낭성을 충주로 볼 경우 진흥왕이 이곳에서 안심하고 巡狩할 수 있었다는 점이나 우륵과 같은 구가야계 유민을 국원을 안치시켰다는 점에서 신라가 이미 충주지역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륵 관련 기사(E-②,③)에 의거하여 신라의 충주 진출시기를 551년 이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42)</sup>

사료 E-④는 같은 해에 신라가 여덟 장군을 보내 죽령 이북에서 高峴 이남에 걸친 고구려의 10개 군을 공취한 기사다. 이 때 신라가 공취한 10군의 땅은 충주를 포함한 남한강 일원으로 생각된다.<sup>43)</sup> 551년 당시 신라군의 주된 북진로가 <단양신라적성비>의 존재로 미루

39) 도살성의 위치에 대하여 ① 음성의 백마령설(신채호, 1977. 『조선상고사』 I, 동서문고, 270~272), ② 천안설(이병도, 1977. 『역주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57), ③ 충북 괴산군 증평의 尼聖山城과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의 頭陀山城 일대로 보는 견해(민덕식, 1983. 「고구려 도서현성고」 『사학연구』 36, 9) 등이 있다. 그런데 천안지역은 고려 태조때 비로서 천안도독부가 설치된 곳이고, 백제 성왕때 한강하류 지역에 진출하는 데 전략적 요지이기 때문에 신라가 이를 공취할 경우 백제의 반발이 크게 예상된다. 또한 신라의 추풍령로를 통한 북진이 청주지역을 경유한 점을 고려할 때 증평 이성산성설이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 道薩城은 고구려가 현재 충북 괴산군 증평이나 청원 일대에 설치한 道西縣의 관할이었다. 최근 충북 청원 부강리 남성골유적에서 성책과 원형수혈갱, 구돌집자리, 토기가마가 발굴 조사되었는데 특히 평저 장동호, 가로띠손잡이 시루, 평저 회백색 가로띠손잡이 단경호, 평저 대형 단경옹 등 고구려계 토기가 일괄 수습되어 고구려세력의 南限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이 유적은 고구려가 475년 이후 이곳을 한동안 점령하여 금강유역과 미호천이 합수하는 지역일대의 수운교통을 控制할 뿐 아니라 금강유역을 넘어 그 남쪽으로 진출을 시도한 군사적 거점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충북대박물관, 2002. <충북 청원 부강리 남성골유적>, 현장설명회자료, 1~35). 고구려군은 그 영유지역인 진천이나 괴산 증평의 이성산성 방면에서 오창, 미호천변을 따라 청원 남성골 지역에 진출하였을 것이다.

40) 金峴城의 위치를 ① 충남 연기군 전의의 金城山, 金伊山城說(이병도, 앞책, 57), ② 고구려때 今勿奴郡으로 보아 鎮川說(민덕식, 앞글, 47) 등이 있으나, 진천은 6세기 중반 당시 고구려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 연기군 전동면의 金城山城은 전의에서 공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금성산(424m)에 있는 석축산성으로 백제계 토기편과 기와편이 수습되고 있는데, 증평에서 청원 옥산을 거쳐 금강의 한 지류인 미호천변을 따라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

41) 娘城의 위치를 청주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으나(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77), 탄금대를 중심으로 우륵의 설화가 전승되어 오는 것을 보면 충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김정호가 쓴 『大東地志』 권6, 청주 연혁조에도 충주로 비정하고 있다.

42) 田中俊明, 1996. 「신라 증원소경의 성립」 『증원문화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23~31.

張俊植, 1998. 『신라증원경연구』, 학연문화사, 111~121.

43) 신라가 공취한 고구려의 10군을 국원성·철원군·夫如郡(금화)·奈吐郡(제천)·斤平郡(가평)·狝川郡(화천)·大楊管郡(회양), 또는 各連城郡(회양) 母城郡(금화)·冬斯忽郡(금화)·平原郡(원주)으

어 볼 때 죽령을 넘어 단양 赤城을 지나 두 길로 나누어 진격한 것으로 짐작된다. 즉 하나는 단양→제천→원주→춘천→철원→안변으로 진격을 하였고, 또 하나는 남한강을 따라 청풍을 거쳐 충주로 진격한 것으로 짐작된다.<sup>44)</sup>

위 기사를 종합하여 신라군의 충주지역 진출과정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신라군은 계림령로 방면에서 고구려군과 대치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공방향을 죽령로 방면으로, 추풍령로와 동해안로 [北海之路] 방면을 좌우 보조 공격로로 정해 북진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추풍령로 방면에서 신라군은 551년 죽령로를 통한 대대적인 북진을 단행하기 이전부터 보은의 삼년산성→보은읍 산성리의 함림산성→내북면 창리의 주성산성→청원 낭성면 성대리의 낭성산성→청원 북일면 초정리의 구라산성(구녀산성)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북진을 추진해오고 있었다.<sup>45)</sup> 550년경에는 신라군이 E-①에서 보듯이 이미 괴산 증평과 연기 전의 지역까지 진출하면서 충주지역을 측면 배후에서 압박하는 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6세기 중반 충주지역에 있던 고구려군은 신라로부터 대치중인 계림령로와 좌우의 추풍령로와 죽령로 방면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급박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때마침 고토회복을 위해 북진을 단행하려는 백제군의 심상치 않은 동향에 접한 고구려군이 이에 급히 대처하기 위해 충주지역을 비롯한 남한강유역에 최소한의 수비병력만을 남기고 그 주력부대를 서울지역의 한강하류변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550년경에 추풍령로 방면에서 북상해오던 신라군이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금현성과 도살성을 점령한 다음(E-①) 고구려군이 철수한 충주지역을 곧바로 점령하고 그 진공목표인 한강하류지역을 향해 북진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신라군은 나제동맹군의 협약에 따라<sup>46)</sup> 한강하류지역에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일단 충주지역과 그 주변 거점지역에 일단 포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때 대가야출신의 于勒은 충주지역에 사민되어 온 것이 아니라 당시 신라군에 종군하여 중요한 儀式때나 慰撫하는 역할때 음악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550년 신라군이 충주지역을 점령하자 우륵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듬해 진흥왕이 娘城에 행차하였을 때 河臨宮에서 음악을 연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고구려군이 충주지역에서 퇴축된 시기는 551년 신라 진흥왕때의 대대적인 북진보다 앞선 550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구려가 충주지역을 영락 6년(396)~10년(400)경부터 550년까지 근 1세기 반에 걸쳐 영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구려가 충주지역을 어떻게 경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그 지배 실상의 단면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먼저 別都經營說을 검토해보자. 즉 광개토왕대인 영락 6년(396)의 작전에 의해 고구려가 충주지역을 영유하여 國原城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이는 서울을 뜻하는 國內城과 같이 別

---

로 비정하는 견해가 참고된다(이도학, 1987. 「신라의 북진전략에 관한 신고찰」 『경주사학』 6, 35).

44) 당시 신라의 북진로는 고구려가 전략적 요충인 국원성(충주)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계림령로를 피하고 대신 죽령로를 통해 충주지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신라군이 문경에서 충주까지 지리적인 장애물이 많아 역습당하기 쉽다는 점을 들고 있다(서영일, 1999.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200~201).

45) 양기석, 1999.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문화사학』 11·12·13호, 358~370.

46) 백제군은 한강하류 6군의 땅을, 신라군은 남한강 상류인 죽령을 넘어 高峴 이남에 이르는 지역을 각각 점령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

都의 의미와 비중을 가진 것이며, 그 설치목적은 소백산맥 이남의 신라경영을 위한 것이라 하였다.<sup>47)</sup>

그런데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충주지역이 고구려때 국원성이었다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사는 아마 신라 진흥왕때 설치된 국원소경의 명칭에 부회하여 기록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설사 고구려에 의해 국원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別都로 경영된 것으로 본 점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고구려가 국내성과 같이 국원성을 別都로 경영했다면 다른 일반 행정구역과는 달리 그에 상응하는 도성시설, 도시구획 및 부속건물, 관련 행정기구와 관료의 존재, 그리고 주변의 고구려때 조성된 고분군 및 관련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충주 일대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유적과 유물로는 가금면 용전리의 <중원고구려비>를 비롯하여 建興5年銘 金銅佛光背, 봉황리마애불·보살군, 장미산성, 탑평리7층석탑 주변의 출토 막새기와 등이 있다. 이러한 고구려계 유적과 유물의 존재를 근거로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7층석탑과 그 주변 일대를 고구려 국원성의 치소로 본 견해가 있다.<sup>48)</sup> 그러나 그 중에서 고구려의 것으로 확실한 것은 <중원고구려비>뿐이고, 나머지 것은 현재 학계에서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당시 고구려가 도성제로서 3京制를 운용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6세기 중반경 고구려는 수도 평양성 이외에 國內城과 漢城<sup>49)</sup>의 3京을 別都로 경영하였는데,<sup>50)</sup> 이들 도성의 행정구역은 上部(東部)·下部(西部)·前部(南部)·後部(北部)·中部(內部)의 5부로 나뉘었다. 수도의 행정구역을 內評이라 하여 5부로 나뉘어 褥薩이 통치하였는데 <平壤城石刻>의 '漢城下後部'의 명문으로 보아 3경 모두에 이러한 도성시설과 행정구획 및 관료들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원성을 국내성과 함께 別都 경영을 했다면 위의 3경제 기사와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동시대에 국내성이 두 개가 설치되는 모순이 생긴다.

다음으로 비교적 고구려때의 고지명이 많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삼국사기』 권37을 검토하여 국원성의 지방행정조직상의 위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고구려에 중국식의 州郡縣制가 지방행정조직이 어느 시기에 성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지만, 대체로 安岳의 修壽墓에 기재되어 있는 墨書銘으로 보아 4세기 후반 소수림왕대에 전국적으로 주, 군, 현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51)</sup> 『삼국사기』 권37에는 고구려 영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漢山州, 牛首州, 何瑟羅州의 3개 州를 포함하여 州郡이 39개, 縣이 88개, 기타 37개로 도합 164개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국원성은 한산주 다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변의 행정

47) 이도학, 앞글(1988a), 102~106.

48) 장준식, 1998. 『신라중원경연구』, 학연문화사, 104~108. 충주지역의 고구려 국원성 관련 유적과 유물에 대해서는 앞책, 44~104와 2000. 「중원고구려비 부근의 고구려유적과 유물」 『중원고구려비연구』 ((사)고구려연구회, 학연문화사), 597~620을 참조할 것.

49) 고구려때의 漢城은 항해도 신원군 아양리·월당리 일대로 비정되는데 주변에 대규모의 건물터와 도로망, 그리고 장수산성(둘레 10.5km), 아양리토성(둘레 2.5km), 도마동토성(둘레 2km)이 있고 또 1,000기 이상의 고구려의 고분군이 존재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 336~338). 한성은 남평양성이라 불리우는데 한때 서울에 있었으나,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한 551년 이후에 이곳으로 이전되었음.

50) 『周書』 권49, 열전41, 이역 상 고려 : 『北史』 권94, 열전82, 고려 : 『隋書』 권81, 열전46, 동이 고려 참조.

51) 고구려가 4세기 후반에 주, 군, 현제를 채용한 이후에도 城·谷 등의 종전의 고구려식 명칭을 그대로 병용하였다고 한다(손영중, 앞책(2000), 188). 반면 5세기대에 고구려가 군현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곧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노태돈, 1996. 「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 『한국고대사논총』 8 및 김현숙, 1996. 『고구려 지방통치체제 연구』, 경북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42~143).

구역인 郡이 설치된 平原郡(원주), 仍斤內郡(괴산), 述川郡(여주), 今勿內郡(진천), 皆次山郡(죽산), 그리고 縣이 설치된 南川縣(이천), 都西縣(청안)보다 다른 군사적 성격의 城으로 편제되어 있다. 城은 3京과 같은 大城의 의미를 가진 지역이 아닐 경우 『삼국사기』 지리지의 용례에 따라 忽·達·峴 등과 같은 군현으로 편제되지 않는 하급 행정구역이거나 행정상 군사상의 특수 행정구역으로 볼 수 있다. 이점은 고구려때 충주지역이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군사적 기능이 강조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같이 충주지역이 당시 내륙 교통로상 군사상 중요한 요충임에는 틀림없으나, 별도 경영을 위해서는 군사적 측면 이외에 행정적인 측면과 관련한 시책 및 인적구성과 시설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라가 충주지역을 고구려로부터 빼앗고 이곳에 국원소경을 설치한 후 성곽시설과 왕경의 6부 貴戚子弟를 포함한 외지의 많은 주민들을 사민시켜 소경의 면모를 단계적으로 갖춰나간 점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가 충주지역을 別都 경영을 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서 거점지배를 관철시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고구려가 충주지역을 어떻게 지배해 나갔는가를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살펴보자. <중원고구려비>에는 나오는 고구려의 인명 중에서 직명·부명·관등명을 지닌 인물들과 장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F [인명] 「太子 共」, 「前部 大使者 多于桓奴」, 「主簿 貴德」, 「新羅土內幢主 下部 拔位使者 補奴- - 蓋盧」, 「古鄒加 共」, 「古牟婁城守事 下部 大兄 耶△」

G [장소] 「跪營」, 「于伐城」

<중원고구려비>는 4면비인데 현재 ‘五月中’으로 시작되는 전면과 좌측면, 우측면에 걸쳐 일부 비문이 확인되고 있으나,<sup>52)</sup> 전반적으로 마모상태가 심해 전체 文意와 성격을 파악하는데에는 한계를 주고 있다. 이 비의 내용은 현재 판독되는 전면과 좌측면 부분만을 놓고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5월과 12월 기사부분으로 대별된다. 5월의 기사는 高麗太王 [장수왕] 이 祖王爺 [광개토왕대 신라와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爺] 에 따라 新羅寐錦과 如兄如弟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新羅寐錦을 跪營으로 불러 함께 守天儀禮와 함께 의복수여식을 거행토록 한 내용이며, 12월 23일 甲寅 기사는 고구려 관인이 于伐城에서 신라관인과 함께 募人活動을 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이 비문에서는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형제관계로 설정하여 두 나라 국왕 [장수왕과 눌지마립간] 이 함께 跪營에서 守天儀禮를 올렸던 점이나 신라의 영역인 우벌성에서 두 나라 관인들이 함께 募人活動을 벌리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려라간에 속민지배가 관철되었던 장수왕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론에 입각한 麗羅關係와 ‘十二月二十三日甲寅’과 관련시켜 볼 때 장수왕 37년(449)에 건립된 것<sup>53)</sup>으로 太子 共의 공적을 기록한 사적

52) 1979년도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입석마을 입구에서 <중원고구려비>가 발견된 이래 그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결과를 단국대사학회, 1979. 『사학지』 13(중원고구려비특집호)에 수록한 바 있고, 그 후 2000년 2월에 (사)고구려연구회 주최로 <중원고구려비>에 대한 재판독을 실시하였고, 이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고구려연구회편, 2000. 『중원고구려비 연구』, 학연문화사에 게재하였다.

53)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① 421년설(木下禮仁, 1981. 「中原高句麗碑」 『村上四男博士和歌山大學退官記念朝鮮史論文集』, 開明書院), ② 449년설(임창순, 1979. 「중원고구려 고비소고」 『사학지』 13 : 김정배, 1979. 「중원고구려비의 몇 가지 문제점」 앞책 : 김창호,

비<sup>54</sup>)로 볼 수 있다.

먼저 F의 관련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비에 나오는 F의 인물들 중에서 太子 共과 古鄒加 共은 동일 인물로서 문자왕의 아버지인데 장수왕대에 早死한 助多로 추정된다.<sup>55)</sup> 太子 共은 前部 大使者 多于桓奴, 主簿 貴德과 함께 5월과 12월 기사에 각각 두 차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한 인물로 보인다. 태자 공은 5월중에 守天儀禮<sup>56)</sup>와 의복수여식에 참여한 바 있고 12월중에는 군대를 이끌고 신라의 우별성에 가서 모인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多于桓奴는 남부에 해당하는 前部 소속이며, 『周書』 13관등 중에서 8위에 해당하는 관등인 大使者를 소지한 인물이다. 主簿 貴德 다우환노와 같이 前部 소속으로서 이 비 건립에 실무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태자 공을 제외하고 다우환노와 귀덕의 소속부가 남부를 관할하는 前部소속인 점, 관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비 건립에 주도적 실무 역할을 맡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태자 공을 수도에서부터 따라온 측근 인물이거나, 또는 충주지역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행정관료로 추정된다.

다음 補奴는 新羅 영토안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의 幢主로서 下部 즉 北部 소속이며 관등인 拔位使者는 『翰苑』 注의 『高麗記』에 의하면 8위에 해당한다. 幢主 補奴는 『魏書』<sup>57)</sup>와 『日本書紀』 雄略紀에<sup>58)</sup> 의거해 볼 때 100명의 군졸을 지휘하는 무관으로서 신라 관인과 함께 3백명을 募人하는 활동을 벌인 인물이다. <중원고구려비>의 내용을 볼 때 신라 영토안에 있는 당주는 행정계통상 충주지역으로부터 일정한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下部 즉 北部 소속 耶△는 『周書』 13등급 중 3위에 해당하는 大兄 관등 소지자로서 古牟婁城守事職을 맡고 있었던 인물인데 이 비에 나오는 관료들 중에서 제일 관등이 높은 인물이다. 古牟婁城은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영락 6년 작전때 고구려에 편입된 지역인데<sup>59)</sup>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인 古牟婁城守事는 <牟頭婁墓誌>에 ‘令北夫餘守事’의 예에서 보듯이 충주지역을 포함한 죽령로 방면을 관할하는 광역단위의 상급지방관으로 볼 수 있다. 고모루성수사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알 수 없지만 충주지역의 업무나 소백산맥 이남의 신라영역의 고구려 당주를 통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다음 G의 장소문제를 살펴보자. 跪營과 于伐城은 비문 중에 2번에 걸쳐 나오는데 비문의 내용 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먼저 跪營은 ‘군영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뜻인데 당시 고구려의 천하관을 상징하는 守天儀禮와 고려태왕인 장수왕이 고구려 관인과 신라매금을 비롯한 신라관인들에게 복속의례인 의복수여식을 거행하던 장소를 지칭한다. 국가간의 중요한 의례를 충주지역의 지방관이 머무는 관사에서 행해지지 않고 군영에서 跪禮를 행한 점은

2000.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연대」 앞책 :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중원고구려비」의 釋讀과 내용의 의의」 『사총』 51, ③ 481년설(변대섭, 앞책 : 신형식, 앞책(1979)) 등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54) 김창호, 앞책, 354.

55) 김영하·한상준, 1983.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연대」 『교육연구지』 25, 41.

56) 시노하라 히로카타는 ‘고려태왕을 받들여 고구려를 위해 협조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일조의 군신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글, 14~23).

57) 『魏書』 권103, 유유전.

58) 『일본서기』 웅략기 8년 춘 2월.

59) 古牟婁城의 위치에 대하여 ①충남 덕산설(酒井改藏, 1970.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 59), ② 포천 반월성설(이인철, 1996. 「광개토호태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의 남방경영」 『광개토호태왕비연구 100년』 ((사)고구려연구회, 학연문화사), 742), ③ 음성 高山城說(손영중, 앞책(1985), 31) 등이 있다.

주목된다. 여기서 跪營의 존재를 통해 고구려때 충주지역의 군사적 성격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다음 于伐城은 영주 순흥면 일대로 비정되는데<sup>60)</sup> 당시 신라의 영역으로서 고구려와의 접경지대이다.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연대를 459년으로 볼 경우 소백산맥을 넘어 관문인 영주시 순흥지역에도 고구려 당주가 주둔하여 일정한 세력을 부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이 비문에 나오는 F 인물들과 G 장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고구려의 남한 강유역과 소백산맥 이남의 죽령로 방면은 古牟婁城守事 [大兄 耶△] - 충주지역 [前部 大使者 多于桓奴, 主簿 貴德] - 于伐城 [新羅土內幢主 下部 拔位使者 補奴 등] 의 지방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충주지역이 소백산맥 이남의 고구려 세력권을 통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교두보적 역할을 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남한 강유역 지배는 충주지역을 중심거점으로 하는 3단계의 군사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영락 10년 고구려의 남정 이후 한동안 형성된 소백산맥 이동의 고구려 세력권은 고구려 당주에 의한 거점지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때의 충주지역은 고려 태왕인 장수왕이 新羅寐錦 놀지마립간을 군영인 跪營에서 만나 守天儀禮와 복속의례인 의복 수여식을 거행하던 상징적인 장소이었으며, 또한 跪營과 于伐城의 존재를 통해 고구려때 충주지역이 갖는 군사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충주지역에 <중원고구려비>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고구려계 유적과 유물을 제외하고는 고구려 지배를 입증할만한 근거 자료가 절대 부족한 편이다. 고구려는 말갈족, 거란족 등 여러 종족을 다스리는데 익숙해진 屬民支配方式이나, 또는 중요 교통로상의 군사적 요충지에 성을 축조하고 이를 거점으로 교통로상에 위치한 여러 집단을 행정단위로 편제하여 통치하는 거점지배방식을 固守해 왔다. 고구려 지배지역에 고구려계의 유적과 유물이 적게 출토되고 있는 현상도 바로 이런 고구려의 전통적인 지방 지배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고구려의 충주지역 경영은 현재 적극적인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추단할 수는 없으나, 충주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조건과 고구려의 전통적인 지방 지배방식을 감안해 볼 때 일단 군사적 측면에 국한시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강유역에서 발굴조사된 서울 구의동 유적과 몽촌토성, 그리고 서울 아차산·용마산 일대에 분포하는 고구려의 보루유적과 같이<sup>61)</sup> 5세기 후반 고구려가 백제의 왕도 한성을 빼앗은 이후 고구려의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맺 음 말

이상과 같이 고구려가 충주지역에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출하였으며, 또한 이 지역을 어떻게 경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삼국사기』 지리지와 <광개토왕릉비> 및 <중원고구려비> 등과 같은 금석문자료를 활용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직 실체가 해명되지 않은 고구려의 지방지배의 한 단면과 5세기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통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구려가 충주지방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출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진

60) 손영중,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5-2, 30.

61) 최종택, 1998.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백제연구』 28, 140~151.

서울대박물관, 2000. 『아차산 제4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

출시기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대대적으로 백제에 공세를 펴는 영락 6년(396)부터 영락 10년(400) 신라구원 작전 때에 걸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그 진출목적은 백제를 멸망시켜 영역화하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제를 제압하여 고구려 천하관에 복귀시키려는데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광개토왕대 고구려의 충주지배는 고구려가 신라 구원을 위해 개설한 죽령로와 그 주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하나의 군사적 거점지역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삼국사기』 권35와 권37의 지리지에 나오는 고구려 영역 기사를 검토한 결과 실제 고구려의 군현이 설치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라가 진흥왕대의 북진 이후 설치한 군현이었으며, 그 서술배경은 광개토왕대 고구려군의 남정 이후 4세기말~5세기후반 고구려의 신라지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 볼 때 충주지역이 고구려때 국원성이었다는 『삼국사기』 지리지 기사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구려에 의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아마 신라 진흥왕때 설치된 국원소경의 명칭에 부회하여 기록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였다. 즉 충주지역의 고지명인 ‘國原’은 고구려로부터 平原郡 [원주] 과 함께 충주지역을 확보한 신라 진흥왕 12년(551) 이후 신라에 의해 명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전 백제와 고구려 영유기에는 아마 국원성의 별칭인 ‘未乙省’, ‘託長城’ 또는 ‘薊長城’ 등으로 불리워졌을 것으로 보았다.

신라가 550년에 충주지역을 확보한 이후 국원소경의 설치를 통해 장차 한반도의 요충인 한강유역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구축하고, 장차 삼국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대한 구도에서 국원소경을 副都의 위상으로 구축해 나갔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신라 진흥왕은 ‘나라의 중심지’라는 의미를 가진 ‘國原’이란 명칭을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군이 충주지역에서 퇴축된 시기는 관련 기사를 검토해 볼 때 551년 신라 진흥왕때의 대대적인 북진보다 앞선 550년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고구려가 충주지역을 영락 6년(396)~10년(400)경부터 550년까지 근 1세기 반에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충주지역이 別都로 경영되었다는 견해를 6이후의 고구려의 3경제 운영사례나 충주 주변의 고구려계 유적·유물의 존재, 그리고 고구려의 고지명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삼국사기』 권37의 지방행정단위를 검토한 결과 충주지역은 당시 내륙 교통로상 군사상 중요한 요충지임에는 틀림없으나, 군사적 측면 이외에 별도 경영의 근거가 되는 제반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시책과 인적 자원 및 관련 시설물들의 존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신라가 충주지역을 고구려로부터 빼앗고 이곳에 국원소경을 설치한 후 성곽시설과 왕경의 6부 貴戚子弟를 포함한 외지의 많은 주민들을 사민시켜 소경의 면모를 단계적으로 갖춰나간 점과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고구려가 충주지역의 別都 경영설은 성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중원고구려비>에 나오는 관련 인물들과 장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당시 남한강 유역의 행정체계는 古牽婁城守事 [大兄 耶△] - 충주지역 [前部 大使者 多于桓奴, 主簿 貴德] - 于伐城 [新羅土內幢主 下部 拔位使者 補奴 등] 의 충주지역을 중심거점으로 하는 3단계의 군사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또한 영락 10년 고구려의 남정 이후 한동안 형성된 소백산맥 이동의 고구려 세력권은 고구려 幢主에 의한 거점지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고구려때의 충주지역은 고려태왕인 장수왕이 新羅寐錦 놀지마립간을 跪營에서 만나 守天儀禮와 복속의례인 의복수여식을 거행하던 상징적인 장소이었으며, 또한 跪營과 于伐城의 존재를 통해 고구려때 충주지역이 갖는 군사적 성

격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고구려의 충주지배는 말갈족, 거란족, 新來韓穢 등 여러 피정복민을 다스리는데 익숙해진 屬民支配方式이나, 또는 중요 교통로상의 군사적 요충지에 성을 축조하고 이를 거점으로 교통로상에 위치한 여러 집단을 행정단위로 편제하여 통치하는 거점지배방식을 固守해온 고구려의 전통적인 지배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이점이 고구려 지배지역에서 고구려계의 유적과 유물이 적게 출토되고 있는 현상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